

챔스영웅

드로그바

“굿바이 첼시”

구단 홈피 통해 이적 발표... 상하이 선화 유력

8년간 341경기 157골 “새로운 도전 나설 것”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 첼시를 유럽축구 정상에 올려놓은 ‘수호신’ 디디에 드로그바(34)가 8년 만에 새 등지를 찾아 떠난다.

드로그바는 23일(한국시간) 웰시 홈페이지를 통해 을 6월 말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하지 않고 첼시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 거취를 놓고 일고 있는 논란에 중지부를 찍고자 한다”며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인 드로그바는 2004년 첼시에 입단한 후 341경기에 출전해 157골을 넣으며 최고의 공격수로서 명성을 날렸다.

특히 지난 20일 바이에른 뮌헨과 치른 2011~2012 유럽축구연맹(UFEA) 키플리언스컵 결승에서 후반 43분 동점골을 넣은 뒤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골을 성공시켜 첼시의 첫 우승을 이끌었다.

드로그바가 어느 팀으로 이적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내게는 푸른 피(첼시)니 유니폼 색깔(가) 흐른다”며 잉글랜드 다른 클럽에서 뛰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겨울부터 이적설이 나온 중국 상하이 선화가 유력한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다.

상하이 선화에는 첼시에서 드로그바와 한솥밥을 먹은 프랑스 출

신 공격수 니콜라 아넬카(33)가 뛰고 있다.

AP통신은 드로그바가 상하이 선화로 이적할 가능성 크다고 전했다.

한편 드로그바의 이적으로 첼시의 다음 시즌 진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돈많은 첼시가 당장 대형 공격수에 눈독을 들이겠지만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 상황을 볼 때 녹록치 않다.

맨유는 물론 아스널 등 상위권 팀들도 대형 공격수에 대한 갈증이 심해 자칫 과열된 영입 전쟁에 잘못 밟을 담그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드로그바는 “다음 시즌부터 토레스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드로그바는 ‘스카이스포츠’의 인터뷰에서 “토레스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자신이 훌륭한 공격수라는 걸 보여줬다. 다음 시즌은 그의 시즌이 될 것이다. 토레스는 미래다”라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로베르토 디 마테오 감독의 다음 시즌 구상도 토레스를 중심으로 공격진이 짜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프리미어리그 분석가들 사이에서 토레스 원톱설이 부상하고 있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연합뉴스

브라질 가는 길... 아시아 4강 엔진 시동

브라질로 가기 위한 아시아 4강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현재로선 네 팀 모두 2014년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통과할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최종예선 1차전 일정에 맞춰 친선 경기를 통해 전력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이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은 24일 스위스로 출국해 31일 베른에서 ‘무적함대’ 스페인과 맞붙는다.

포르투갈 출신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 이끄는 이란은 27일(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알바니아와 친선전을 치른다. 6월 3일 타슈켄트에서 가진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예선 1차전에 다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월 카타르 아시안컵 8강에서 한국에 완패를 당했던 이란은 이후 A매치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지난 2일 모잠비크와의 친선경기에서는 3대0 완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케이로스 감독은 우즈베크 뿐만 아니라

12일 카타르와의 최종예선 2차전까지 나설 24명의 선수 명단까지 발표한 상태다. 21일부터 28일까지 터키에서 전지훈련을 갖는 일정도 짜놓았다. 이란의 간판 선수인 자바드 네구남(오사수나)과 한동안 정치적 이유로 대표팀에서 제외됐던 알리 카리미(페르세폴리스)가 다시 부임을 받았다. 독일 청소년대표팀을 거쳤으나 이란에서 A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던 아쉬운 데야(볼프스부르크)는 시즌 막판 오른쪽 허벅지 끙근육(헬스트링)을 다쳐 소집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 1위 스페인과 모의고사

이란, 알바니아 상대 상승세 지속

일본, 아제르 전 해외파 총출동

호주, 노장주축 덴마크와 친선전

를 잡지 못하다가 올 초 불펜으로 임대된 이후 재조명받고 있다. 불펜 완전이 적설까지 불거질 정도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A대표팀에서도 여세를 몰아갈지에 이목이 쏠려 있다. 미야이치 외에도 이란계 일본인 미드필더 하세가와 아리아지스루(도쿄)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맹활약한 수비수 사카이 히로키(가시와)도 아제르바이잔전에서 기량을 점검 받을 예정이다.

흘러 오자크 감독이 이끄는 호주는 느긋하다. 최종예선 텁 시드를 배정 받으면서 6월 9일에 최종예선 1차전 일정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호주는 6월 3일 코엔하겐에서 덴마크와 친선경기를 가진 뒤 9일 무스카트에서 오만과 최종예선 1차전을 치른다. 6월 12일에는 안방에서 조 수위 경쟁자 일본과 맞대결을 펼친다.

오자크 감독은 이미 3연전에 나설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팀 케이힐(에버턴)을 비롯해 마크 브레시아노(알 나스르), 해리 키웰(엘버른), 브렛 헐먼(애스턴빌라), 마크 슈바르저(풀럼), 투카스 닐(알 자자라) 등 간판급 노장들이 다수 포함됐다.

아시아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도 대거 포함됐다. K-리그에서 활약 중인 사야(성남)와 맥카이(부산)가 당당히 호주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 F-리그에서 활약 중인 조슈아 케네디(나고야)와 알렉스 브로스케(시미즈), 마크 밀리건(제프 지바), 매튜 스피라노비치(우라와)가 오자크 감독의 부임을 받았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B조에 포함된 ‘영원한 라이벌’ 일본은 23일 시즈오카에서 아제르바이잔과 한판 승부를 펼친다. 알베르토 자카로니 감독이 내놓은 23명의 명단에는 현재 일본이 자랑하는 선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맨유 이적설이 불거진 가와 신지(도르트문트)와 부상에서 회복한 혼다 케이스케(CSKA모스크바) 뿐만 아니라 나고야 모유보(인터밀란), 오키자키 신지(수트로가르트) 등 10명의 해외파가 포함되어 있다.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의 주역 이충성(사우스핸顿)은 시즌 막판 부상하면서 수술을 받아 당분간 출전할 수 없는 상태고, 마이크 하베나르(비테세)는 자카로니 감독의 부임을 받지 못했다. 자카로니 감독은 아제르바이잔전을 치른 뒤 6월 3일부터 시작될 최종예선 3연전 일정에 나설 최종명단을 발표한다.

일본은 아제르바이잔전에서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의 기량을 테스트하는 등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일본의 축구 천재로 불리는 미야이치 쿠(불펜)다. 미야이치는 아스널 입단 후 기회



송원대학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여자부 우승

송원대 산악회가 제45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에서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대통령기 등산대회는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며 등산 전반에 관한 이론과 등산의 운행능력, 산악독도법, 각종 장비, 응급처치, 암벽경기, 매듭법, 산악안전 등의 실기를 평가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는 식품영양학

과 한태경(21), 이은비(21)가 참가해 여자대학부 1위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도(83학번 전자계산과) 송원대출신으로 지난 해 9월 ‘허밀리아의 여신’ 초우유(8.201m) 정상에 서는 등 송원대 산악회의 명성을 알리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제주도 한라산등반, 올레길 위킹

목포 농동(고봉), 원도출발 (1박2일)

79.000원 부터! 매일출발!

전진비마여행사(산악부) ☎ 1588-4767

www.gunguntour.co.kr

수익성 최상!

15억 = 월 1,300만

대지 685m², 건물 2,931㎡

보2역/월 2,200만

용자12층 매매26억

28억 = 월 2,600만

대지 1,342㎡, 건물 5,700㎡

보4역/월 4,600만

용자33층 매매60억

010-3666-4646

스타 액소폰 연구회

회원모집

회원자격

액소폰 배우고 싶은 사람

남녀노소 누구나

주임강사 / 이 경

경력 / 부평육군 군악대장

· 미군 예하부대 연주단

· 원도군 청년소년 악단장

초청강사 / 김세종(중고교교사)

수강증명

테니, 엘토, 소프리노

서구회장 3동 825-13 지하1층

HP 010-3376-9285/010-7753-1918

산행 안내

해외 및 해상 계획지 불가합니다. (자자만 가능)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5월25일(금)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26일(토)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25일(금)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5월26일(토)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26일(토)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25일(금)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5월27일(일)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27일(일)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26일(토)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5월28일(월)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28일(월)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27일(일)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5월29일(화)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29일(화)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28일(월)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5월30일(수)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0일(수)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29일(화)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5월31일(목)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1일(목)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0일(수)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1일(목)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0일(수)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1일(목)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0일(수)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1일(목)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0일(수)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1일(목)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0일(수)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1일(목)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0일(수)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1일(목)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0일(수)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1일(목)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0일(수)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1일(목)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0일(수)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1일(목)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0일(수) 10:00~17:00 *한국(상)에서는 기준입니다. 4/30 이후는 불가!

▲광주토요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 5월31일(목) 5:00 충북 단양 소백산 5